

학습자료 (어린이집 교직원을 위한 필수법정교육)

1차시. 아동학대 예방교육

*생존권

-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,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,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,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

*아동학대 관련 법률

- 아동복지법, 교육기본법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

*제노바선언은 세계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으로서 아동의 보호적 측면이 강합니다.

*정서적 학대 : 유아에게 무관심한 행태 및 말로 무시하고 위협, 욕하는 것. 언어적 공격, 경멸, 모독감, 수치심 등을 주는 발언

*2017년 아동학대 발생 유형 중 중복학대가 48%(1만778건)로 가장 많았다.

*아동은 성인과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.

*영유아 학대의 결과로 가장 흔하며 전반적 자아기능의 손실을 보인다. 발달 지연과 중추신경장애, 언어발달의 장애도 보인다.

*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,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, 학교(의무교육)에 보내지 않는 것이다.

*무차별의 원칙은 아동은 인종, 피부색, 성별, 언어, 종교, 정치적 견해 등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.

2차시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*아동학대 신고의무자

- 보육교직원
-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*24시간 아동학대는 신고전화 112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.

***신고자 보호조치**

- 신문이나 TV등의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경우, 수사기관 혹은 아동 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말하거나 언론에 누설하는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(수사기관 포함)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*아동학대 예방이 필요한 이유**

-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.
-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도 있다.
-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이다.
- 학대 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며, 학대가 그대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

*삶 속에는 가지고 싶은 것(want)과 꼭 필요한 것(need)이 있다. 이 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바로 권리라고 한다. 권리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한 것이다. 성인으로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 해 주고 있는 주체여야 한다.

***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특징**

- 집(어린이집)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한다.
-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.
-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내기도 한다.
-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한다.

***아동학대 발견시 주의사항**

-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-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.
-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한다.
-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야 한다.

3차시.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·취약아동 이해

*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.

*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%가 장애인이다.

*발달장애인이 증가추세이다.

*여성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 수가 높다.

***장애인 차별 금지법**

-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·조장하지 않는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.

***드림스타트 선정 기준**

- 0세(임산부)~ 만 12세(초등학생 이하) 아동 및 가족
-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
- 국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, 법정 한 부모 가정 (조손 가정 포함),
-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

***장애와 관련된 내용**

- 미성숙한 사회 여건 속에서는 경미한 장애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, 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도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.
-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명명하였다.
- 중세유럽에서는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명했다.
- 장애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다.

*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장애 발생 원인의 88.1%는 후천적인 영향이다.

*** 장애아동들의 권리 내용**

-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,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한다.
- 장애아동은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.
-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.
- 장애아동은 의료적, 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.

***신체적 장애**

- 간장애
- 시각장애
- 언어장애

***아동성폭력 피해의 후유증**

-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진다
-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.

- 성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.
-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.

4차시.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

*성폭력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아동이라 한다.

*결함중심 예방전략

- 성폭력에 수반될 수 있는 살인이나 상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위험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이나 도피를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.

*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예방전략

- 성폭력은 아동의 책임이 아닌, 성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다.

*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예방전략

-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행동,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략이다.

*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. 또한 성폭력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포함하므로 일상생활 중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. 아동성폭력은 성인 및 아동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.

*아동청소년 성폭력 특성

-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 받는다.
- 아동은 어른을 이겨낼 신체적 능력이 없다.
- 아동은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다
- 아동은 성폭력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.

*그루밍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성 학대에 이르는 단계

- 피해자의 취약성 파악해 피해자 고르기
- 피해자의 욕구 채워 주기
-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따스함 드러내기
- 일대일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 고립시키기

*성폭력 예방 수칙

-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로 수용한다.
- 평소 일상생활 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.
- 개인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.
-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갖는다.

*예의바른 사람의 7가지 태도

-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.
- 먼저 스킨십하지 않는다.
-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매너를 지킨다.
- 가십거리는 듣지도 전달하지도 않는다.
- 자기주장만 고집하지 않는다.
- SNS를 감정의 배설구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.

*인사 시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인사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먼저 바라본 사람이 한다.

*보육교사의 역할

- 과거에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보육만을 강조하였다.
- 발달을 지원. 지도하는 교육자이다.
-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.
- 보육교사의 역할은 크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보살핌이다.

5차시. 보육교사 인성교육1

*경청

- 1단계 : 말하는 사람 바라보기
- 2단계 : 말하는 사람에게 반응 보이기
- 3단계 : 말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기

*영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내 아이가 좋아하는 교사, 영아를 존중하는 교사, 육아경험이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다.

*좋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인성 덕목 중 예절은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을 의미한다.

*좋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인성 덕목 중 배려는 나와 다른 사람, 환경에 대하여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.

*좋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인성 덕목 중 책임은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.

*응급 상황 시 행동요령

- 현장조사(Check)->119신고(call)->처치 및 도움(care)

*“심정지” 혹은 “심장마비”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방식의 서구화에 따른 심장혈관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.

*심장마비를 목격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의식상태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.

6차시. 영유아 응급처치교육

*119신고는 일반인이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신속히 행동하여야 한다. 119에 응급상황이 일어난 장소와 환자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. 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통화를 계속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목격자들에게 119 신고를 지시한다.

*성인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분당 100~120회의 속도, 약 5~6cm 깊이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.

*1세 미만의 영아의 어깨를 과도하게 흔드는 것은 경추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. 그러므로 1세 미만의 영아는 한쪽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서 환아의 움직임이나 반응을 확인한다.

*소아 심정지 환자의 가슴압박 깊이는 가슴 두께의 약 5cm정도이고, 1세 미만의 영아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깊이는 4cm정도이다.

*유아가 당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

- 횡단 중 부주의 사고
- 도로상의 위험한 놀이
- 뛰어들기 사고

*다음 중 길을 건널 때의 안전수칙

- 어두워진 후 길을 걸을 때는 빛을 받으면 색이 밝아지는 옷을 입어야 안전하다.
- 길가에 세워 둔 자동차 곁을 지날 때에는 그 차가 후진을 하지 않는지, 막 출발하려고 하지 않는지, 또 누가 차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지를 살핀 다음 얼른 지나간다.
- 길을 걸을 때는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하며 뒤돌아보거나 장난하지 않는다.
-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인도 위로 걸어야 한다. 만약 인도가 없는 길이라면 차도로 걸되 차를 등지지 말고 차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걷는다.

*잠든 아이 확인 장치(Sleeping Child Check)는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,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이 모

두 내렸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.

***유아의 교통행동 특징**

- 유아는 신기하게 생겼거나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.
- 한 가지 일에 열중하면 주위의 일이 눈이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.
- 유아는 다른 사람을 흉내 내어 것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이 매우 강하다.
- 유아는 자기의 관점과 남의 관점을 구별 못한다.

7차시. 교통안전교육

***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**

- 유아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 것을 보면 유아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- 교통안전을 위한 지식, 기술, 태도는 영유아 때부터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.
- 혼자 집을 나서서 주차장을 가로지르고, 길을 건너며, 버스를 타고 내리거나 자동차들이 다니는 제법 먼 길을 혼자서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.
-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유아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고 태도를 익혀야 한다.

*7세 이하 유아 보행자 사고의 70%정도는 뛰어들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. 뛰어들기 사고는 주거 지역 내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. 특히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더욱 그렇다.

***승용차를 탈 때의 안전수칙**

-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영유아들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는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므로 영유아들은 뒷좌석이나 안전의자에 앉도록 한다.
- 창문 밖으로 머리카락이나 손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.
- 운전 중인 성인에게 장난을 하거나 조르지 않도록 한다.
- 영유아들이 앞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뒷 좌석에 앉은 후 벨트를 합니다.

***유아교육기관의 버스를 탈 때 안전규칙**

- 유아들은 버스를 정해진 장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한다.
- 버스를 오르거나 내릴 때는 긴 옷자락이 밟히거나 버스의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옷자락을 잘 들고 내리도록 지도한다.
- 승·하차 때 교사는 차에서 내려서 유아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지도한다.
-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널 때는 교사가 길 건너까지 데려다 주거나 좌우 양쪽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건너도록 한다.

***안전벨트와 관련한 내용**

- 안전의자에 벨트는 X자형이어야 하며, 9KG미만일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.
-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어른의 경우 사망사고를 55% 중상으로 낮출 수 있으며, 중상의 60%를 경상으로 낮출 수 있다. 어린이의 경우는 사망사고를 90%, 부상사고를 75%나 줄여준다.
- 아기의 무게가 18KG정도 될 때까지는 차 안에서 안전의자가 꼭 필요하다.
- 안전벨트는 유아의 허벅지 위로 낮게 매고 어깨 위에서부터 유아의 가슴에 붙어있어야 한다.

8차시.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

*남용은 감정, 인격, 행동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학적 상식, 법규를 벗어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.

***카페인**

- 카페인을 50~100mg을 섭취하면 각성 상태가 증가되고 안정감이 느껴진다.
-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 양을 성인은 하루 400mg, 어린이·청소년은 체중 1kg당 2.5mg으로 정하고 있다.
- 하루에 5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카페인 중독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. 카페인 500mg 은 커피 4잔, 홍차 8잔, 콜라 12잔 정도로 말할 수 있다.
- 카페인 은 이뇨작용, 안면홍조, 심장근육 자극작용, 장운동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.

*내성은 약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점차로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약물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

***알코올이 미치는 위험성**

- 대뇌피질의 기억 세포가 파괴됨으로 기억력 감퇴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저하된다.
- 성호르몬 분비의 저하 및 생식 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.
- 장염 및 장암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.
- 지속적인 음주는 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.

***올바른 약물 복용법**

-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처방 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 나중에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더 악화될 수도 있다.
- 약을 임의로 쪼개거나 뺀 경우는 약의 효과도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일으킨다.
-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과 음식이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.
- 물을 적게 마실 경우, 약이 식도에 걸려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물은 최대한 많이 마신다.

***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방법**

- 약을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의사 혹은 약사와 상담 후 구입하여 복용하여야 한다.
- 다른 사람의 약을 증상이 비슷하다고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.
- 약을 표시된 용량보다 더 많이 복용하거나 더 오랜 시간 동안 복용해서는 안 되며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.
- 약을 처음으로 복용할 때는 용법, 용량, 주의 사항 등 의문이 나는 사항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본다.

***의약품의 올바른 보관법**

- 항생제의 경우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
- 특별히 보관 장소나 방법에 대한 주의 설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늘진 실온에 보관한다

9차시. 재난 예방 관리

***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**

-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한다.
- 화재 발생 시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끈다.
- 지진 발생 시 진동 중에 밖으로 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매우 위험하다.
-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산이나 바다에 있는 경우에는 산사태, 절벽 붕괴에 주의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.
- 대피 장소를 찾는 경우에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과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.
- 전철을 타고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,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.
-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해야 한다.

***집중호우 시 행동요령**

-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,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,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.
-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, 외출을 자제하며,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한다.
-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.
-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,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.

***장마철에 감전재해가 증가하는 이유**

- 높은 습도로 전기기기의 절연 성능이 저하된다.
- 젖은 손, 땀, 젖은 바닥으로 인해 전기저항은 감소한다.

- 덥고 습해 보호구의 착용을 기피한다.
- 귀찮은 생각에 작업안전수칙을 무시한다.

*태풍 피해 대처방법

- 태풍 발생 전에는 TV나 라디오, 인터넷,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둔다.
- 태풍이 다가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강시설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.
- 태풍 발생 후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한다.
- 태풍 발생 후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.

*장마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안전수칙

- 전기기기를 점검, 정비할 때는 전원을 차단한다.
- 젖은 전기기기는 건조 후 사용한다.
- 손이나 발이 젖었을 때 물에 젖은 전기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손이나 발을 전기기구 사용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잘 말린 후에 전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.
- 지하실 등 침수 지역에 접근할 때에는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한다.

10차시. 개인정보 보호

*개인정보 보호 원칙
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